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두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 - 30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약 1:17)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께 빌려서 당분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받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실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1. 하나님으로부터 적은 달란트를 받은 이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것처럼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토기장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벌레가 천사가 되지 못한 것이나 물고기가 날개가 없는 것을 불평한다면 그것은 아주 우스운 얘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당하게 지으셨고 개인마다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적다고 불평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와 다양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크기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빛의 강도가 각각 다릅니다. 또 땅에는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식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개개인이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적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세상의 적은 영역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큰 배와 큰 물고기는 바다가 필요하지만 작은 물고기나 뚝단배는 강이나 개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적다고 원망하거나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달란트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위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를 잘 파헤쳐서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은 말씀도 거칠고 행동도 순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2. 심판날에는 적은 달란트도 계산된다

하나님은 큰 일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일도 계산하십니다. 나폴레옹은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노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생각한 적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죄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적은 죄를 심판대 위에서 가장 큰 죄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개개인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을 하시되 항목별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견이 없는 것으로 지극히 정확합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긴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을

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 무익한 종과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에게 다시 가져왔으나 성경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충성 개념을 회생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좋은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25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충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악하고 게으르며 무책임하고 회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주고 자기에게는 적게 주었다고 핑계했습니다. 감사와 겸손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회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도운 이는 예비 된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임 있는 삶을 산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받은 달란트의 크고 적은 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받은 두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 서울교회 섬김위원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3)

우리교회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오는 해의 당회조직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각 위원회 및 부서 조직을 완료 한후 12월에는 임명 및 교체를 하고 새해를 출발한다.

2004년에 각 부서를 섬길 분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란다.

· 당회서기: 김광신
· 위원회

· 부서기관

· 찬양대

· 교구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예배(위)	최종시	예배부: 최종시 찬양부: 임상현
기획(위)	김광신	기획부: 김광신 인사부: 오정수 홍보부: 전기섭
교육(위)	노문환	교육1국: 하영수 교육2국: 노문환 교육3국: 이완형 교육4국: 노송성 교육5국: 박정선
교구(위)	김세재	서기: 홍성주 회계: 조정식
전도(위)	민순구	전도부: 김광신 선교부: 김상철
구제(위)	정병무	구제부: 이계홍 봉사부: 박경희 경조부: 민순구
재정·관리	오정수	재정부: 오정수 서기: 윤봉준 회계: 임훈규
감사	신용식	김 훈

출판국	전기섭
주부대학	신용식 · 남태순
실용성경대학	왕경래
서울성경대학	윤찬오
교회갱신연구원	홍정호
비전2020	이병생
상담실	최학인
장학회	홍정호
멀티미디어 봉사단	오정수 · 조철기
차량관리	조정식
식당관리	이관규 · 이찬호

찬양대	대장	부대장
가브리엘	박두호	김성준 · 이영자
할렐루야	김대호	최형열 · 황노전
임마누엘	임상현	손병석 · 안분선
베들레헴	홍성주	조동완
오산나	박우욱	이영희(정무근)
시온	하영수	오승민 · 허숙
은빛	정병무	이영자(8교구)
갈렘	민순구	김정희
그리스앤드블레이어	김규태	이영희(오정수)
클로리아	서희숙	
펠그림	오정수	
아멘 관현악단	이완형	천정화

1교구	박두영
2교구	하영수
3교구	정병무
4교구	임훈규
5교구	전기섭
6교구	노송성
7교구	박두호
8교구	홍성주
9교구	윤봉준
10교구	이복규
11교구	왕경래
12교구	김광신
13교구	조정식
14교구	신용식

· 전도부: 남여전도회, 70인전도대
· 선교부: 해외단기선교, 농어촌100교회, 직능별 선교회
· 교육위원회

교육부서	부장	남부감	여부감	지도	
교육1국 (하영수)	유아부	최양혜	장양일	박우욱	박금실
	유치부	최양진	이양철	박창희	이규정
	유년부	신용식	최규초	전정숙	이태훈
	초등부	하영수	김시환	김찬진	이성득
	어린이 오후 예배	양인수	최형열	김미향	오정식
어린이 수요 예배	박두영	임옥균	한정아	이용식	
교육2국 (노문환)	중등부	노문환	이태원	김윤자	윤영국
	고등부	이복규	김형택	장낙희	오정식
교육3국 (이완형)	대학부	이완형	손태기	김예환	서명철 · 손재영
	청년부	오정수	최차순	이인숙	이태훈
	신혼가정부 디아스포라	이학주	이동만	오송례	이규정 심주일
교육4국 (노송성)	사랑부	이승우	김현영	여명숙	이용식
	에바디부	윤봉준	안인호	이경희	임규현
	새가족부	노송성	김중근	김정희	지혜영
	오리문답 영어성경부	하인선	김복승	박우주	한상은
교육5국 (박정선)	30대 부	송인권	이영조	이영숙	김운호
	40대 부	김인수	양춘경	주경자	김운호
	50대 부	황경옥	윤성남	이인선	김운호
	60대 부	김영주	김중윤	김혜경	김운호
	70대 부	이재권	이재운	이순혜	김운호
	신앙강좌1	윤운식	이기범	전수자	김영한
	신앙강좌2	우지원	장두현	최경자	김재진
	찬양대 양성반	박정선	백수남	박태희	박정선

· 제직회 - 서기: 오형철 부서기: 안인호 · 홍일성
회계: 오정수 부회계: 현금계수위원 중
· 실용권사회 - 회장: 김종자 부회장: 김용숙
· 권사회 - 회장: 박경희 부회장: 이경희
· 스테반회 간사: 오광환

금주의 성구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나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NIV job 19:25-26)

우리교회 TV 방송 선교 참여한다

-11월 첫 주부터-

기독교 방송 (위성 CH 162)와 기독교 TV(케이블 CH 42)에서 방송시작

기독교 방송국이 지난 해 3월부터 개국한 CBS TV(위성 TV 채널162)에 우리교회가 11월 첫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TV 강단 프로로 참여한다.

한편 기독교 TV(케이블 TV 채널 42)도 조만간 프로그램을 내보내어 방송 선교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당회가 결정하였다.

10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일 셋째 주일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0월 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한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교회 로고가 새겨진 머그 컵을 기념으로 드린다. 10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4독: 김정호 성도(12교구)

2독: 이운영 권사(5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1독: 황보추자 권사(5교구) 김혜연 집사(5교구) 강희자 권사(8교구) 이현옥 성도(8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최광성 집사(12교구)

제3기 찬양대 양성반 모집

10월26일(주) 개강

찬양대 양성반에서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개강은 다음 주일인 26일에 하며 매주일 오후 1시 30분 601호에서 7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강과목은 호흡과 발성법, 리듬과 박자, 계명창법, 지휘 보는 법 등으로 찬양대에서 꼭 필요한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된다. 등록은 사무국에서 하면 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한편 제2기 수강생 중 전 과정을 이수한 29명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고 발표도 하게 된다. 수료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수남 강호준 경은숙 김금복 김도연 김영주 김운진 박우욱 박정순 박정원 서경선 서경애 손명근 송경옥 오 은 유명호 윤종희 이갑엽 이금순 이덕희 이예덕 이은희 이인선 임정인 장낙희 전인순 전화진 정병무 (이상 29명)

오르간 제작을 마치며

축복의 기운으로 연주하는 악기

홍성훈(오르겔바우마이스터)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이젠 그곳에 영원히 서 있게 될 악기. 하늘과 사람을 잇게될 파이프오르간.

처음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었던 날이 1999년 12월 겨울이었으니 벌써 3년 7개월 여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그린 설계도와, 또한 셀 수도 없는 부품들과 수 천개의 파이프들을 만들고, 커다란 퍼즐을 꺼 맞추듯 각자 맡은 작업들을 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것도 버거울만큼 진이 빠져 침묵 속에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오르겔이 완성되어 작동되기까지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됨을 매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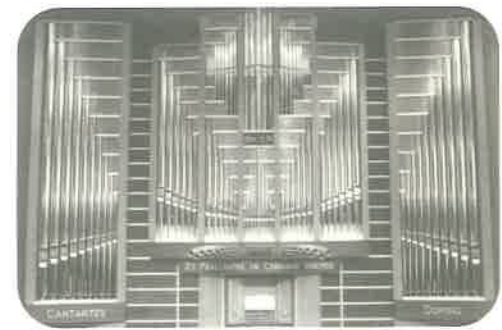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떤 소리로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선 무심히 지나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파이프오르간은 배합의 악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재료이고 그 소리 중 몇몇을 파이프 끝 피리에 담아 한테 모은 것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전자악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소리요, 다른 악기와도 뚜렷이 구별되는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가 홀 안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더욱이 연주하는 시간외엔 공간의 일부로 조화롭게 서 있어야하기에 외형의 미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빛에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600여가지의 색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섞이면 섞일수록 흰색의 순수에 가까워지듯이, 파이프오르간의 소리 배합 역시 섞으면 섞을수록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의 소리에 가까워집니다. 인공이 섞이지 않은 자연의 소리인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파이프오르간은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악기로 진작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축복의 기운으로 연주하는 악기'란 말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는 말씀과 땅으로부터는 찬양의 기도로 환희에 차고도 풍성한 은혜가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합창·청년부 수해복구를 다녀와서

지식인보다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강민정(청년부)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불과 6시간정도 한반도에 머물렀던 태풍 매미, 바로 이 태풍으로 인해 사망 116명, 실종 13명의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매년 태풍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막대한 피해의 원인을 '대책 수립 미비'에 두지만, 기독교인은 그 근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태풍의 피해가 일어난 시점이 공교롭게도 추석연휴 때였다. 십계명 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두 번째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10월 3일, 휴일을 이용하여 청년부 대학부가 연합해 마산

시 진동면으로 수해 복구 봉사를 다녀왔다. 우리는 거기 전이 이번 봉사로 인해 마산시 진

동면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고 참여하는 각 청년들이 보다 깊은 이웃사랑을 체험하기 바라는 기도제목 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2일 자정에 고속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 아침에야 마산에 도착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청소'와 '그물 정리 작업'이었다. 작년 태풍 '루사'가 강원도에 큰 피해를 주었을 때 흠을 나르던 일을 조금 도와 보았기에 이번 일은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하지만 수재민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내 몸 하나 하루쯤 봉사하는 일은 아깝지 않았다. 그곳에 온 많은 청년들의 마음도 모두 같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루만의 봉사라 한 집의 그물을 다 풀기도 힘들었지만, 그 집 주인 아주머니는 '요새 이런 청년들 없다'며 참 고마워 하셨다. 그리고 마침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으므로 우리의 작은 일로 반드시 그 가정 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리라 확신한다.

'지식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혜자'가 되기 위해 몸으로 주님 말씀을 행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주 있는 봉사가 아닌 만큼 격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지연(대학부)

뉴스를 보면서 태풍으로 인해 너저분하게 널려있을 참담한 현장을 상상했었는데, 10월3일 오전에 마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 복구된 상태였고, 부서진 건물 몇 채만이 남아 그때의 상황을 증명해 주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그 곳 교회 목사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 그 때에 맞춰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이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복음 전파의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내가 간 곳은 그물이 엉켜서 널브러진 해안가 한 가정집이었다. 그물이 엉켜서 하나하나 풀어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열댓 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하던 금방 하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각자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들어도 쉬기 미안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다들 여기 저기로 놀러가거나 쉬고 있을 시간에 마산까지 내려와서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옷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 모습 속에서 청년부의 밝은 미래가 느껴졌다.

바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한 건 일을 거의 마무리 한 뒤 쉴 때어야 알 수 있었다. 일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어서 바다 빛깔이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해가 질 무렵에서나 느낄 수 있었다. 일하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시골 아낙과 농사꾼의 모습을 연상케 했지만 그 모습마저도 참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오고가는 중에 사고는 나지 않을까 기도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아프지 않게 돌아올 수 있었고, 우리들의 작은 몸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제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전할 때



양경재장로(11교구)

12년 전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치는 부정으로 부패되고 경기는 불황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민족을 사랑하사 일제의 억압과 6.25전쟁

과 IMF 외환위기 등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변영케 하여 주시고 특히 선교 강국으로 성장시켜 주셨다.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간, 세대간, 노사간 갈등, 편 가르기, 안보부재, 재신임문제 등으로 풍랑으로 좌초된 배처럼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다. 격랑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뿐이다. 위기는 기회이며 고난은 유익이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공활을 전심으로 구하던 느헤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한 에스더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온 교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누구를 탓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통회자복하고 이 민족의 범절을 회개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구와 도구가 있어야겠다.

2003년 사명자 대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2003 사명자 대회 24시간 연속기도표(10월 20일 - 25일)

시간·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20(월) 13교구	박금실 이변생 이남성	박금실 이변생 이남성	박금실 이변생 이남성	박금실 홍성주 정동호	박금실 홍성주 정동호				서경애 강민희	한상은 오정식	13-5 이마승	13-5 전용순	이용식 지혜영	임규연 이태훈	이성득 이규정	김운호 윤봉준	김희진 서경애	서경애 서경애	한상은					
10.21(화) 14교구	손재영 이복규 탁경준	손재영 이복규 탁경준	손재영 이복규 탁경준	손재영 이관규 장영일	손재영 이관규 장영일				강민희 유성임 14-6 주화인	박종숙 14-7 원복순 정중순	정미연 원복순 정중순	국산옥 정중순 윤용미 정미연	우경자 우경자	박수옥 14-11 김명심 14-10	14-13 이명순 13-11	손성실 정경자 이순희	윤봉준 남태영 14-14	서경애 서경애	서경애 서경애	차도훈 14-2				
10.22(수) 1교구	이성득 김세재 김현영	이성득 김세재 김현영	이성득 김세재 김현영	이성득 최학인 오유식	이성득 최학인 오유식				원복순 최봉애 최무순 허연숙 이성희	전인화 방계운 김경희 심재술 김경희	최난수 최영순 이은희 선우신지 영호선	수요부 예배		정경자 주의현 선경자 권희순 김지은	김민숙 김영식 노은래 김영식 배영애	최금례 이지현 홍승자 김명숙	전용순 배은희 윤길란 손순옥 박순봉 김명숙	수요부 예배		서중숙 왕경희 이년화 김찬진 김수호	수요부 예배 이등만 홍창배 한홍연	서경애 최홍렬 유근중	서경애 최홍렬 유근중	진기섭 최규초
10.23(목) 1교구	이규정 진돈 김중근	이규정 진돈 김중근	이규정 진돈 김중근	이규정 이재권 김규태	이규정 이재권 김규태				박현영 강민희	김재애 강성래 전인숙	김명자 조영자 주화인	김계순 현기옥	전행자 김중자	이인숙 김명자	김일순 임승자	전용순 아옥봉	박영자 배영애	김연화 윤봉준	김희진 김광룡	서경애 허영수	서경애 최영진	서경학 서경학		
10.24(금) 2, 3교구	김운호 이갑진 양인수 탁경준	김운호 이갑진 양인수 탁경준	김운호 이갑진 양인수 탁경준	김운호 정병무 손영근 송인권	김운호 정병무 손영근 송인권				서경애 송인권 윤숙지 강민희	송인권 주화인 이우상 윤숙지 주화인	박분옥 3-13 정경자	박분옥 3-13 정경자	여영숙 3-7	여영숙 3-7	김영식 최정순 3-9	최정순 3-9	이은옥 3-14	이은옥 3-4	김현정 3-11	이경구 3-3	금요 기도회 3-3 김희진		서경애 오유식	서경애 윤성남
10.25(토) 3, 7, 8교구	윤영국 전기섭 이학주	윤영국 전기섭 이학주	윤영국 전기섭 이학주	윤영국 박성수 김금준	윤영국 박성수 김금준				진경옥 심재술 서경애	이상호 박두호	유순섭 함은희	이영기 이영숙 영동옥	김정운 한준홍 남순덕	김정운 한준홍 남순덕	정경자 유병옥	여현진 이부자 이영숙	진경옥 유순섭 한성옥	유병석 유태서	유태서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서명철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목)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2차 국제신학학술대회 개최에배 설교를 한다.
- 피택장로 6분은 지난 17일 서울강남노회고사를 모두 합격하였다. 마지막 당회 면접을 통과하면 11월 23일 안수를 받게 된다.
- 이사: 오은숙 성도(8교구) 상북구 정릉4동 풍림아이원APT 105-502 전화: 6251-5209

전송근 집사(이혜선 집사(10교구) 강동구 명일동 312-1524층
전화: 481-3207
12교구 최호영, 천전화집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대림 아파트 101/605 전화 031) 264-6550
■ 독녀: 이재광 한은숙 성도 가정(3교구)
■ 수장: 서경학 집사(1교구) 17일 석탑산업훈장 수상
■ 급주의 식사: 이규희 권사 가정(남편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寧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세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